비전개발 7주차

21600685 조예성

Die Loseungen(오늘의 말씀)은 독일의 헤른홋 형제단(Herrnhuter Bruedergemeine)에서 만들어내는 구약과 신약 말씀 한 구절씩 선정하여 내는 일종의 큐티집이다. 선정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둘의 연관성이 매우 클 만큼 깊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여 말씀을 선정한다.

이러한 헤른홋 형제단에 대해 얼핏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검색을 해보니 ‘모라비안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모라비안 교회는 우리가 지금 만연히 알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 생활, 형제 의식으로서의 교회, 소위 루터의 종교 혁명 전, 현재 교회의 모습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로마 카톨릭이 성행했을 때, 이들은 같이 모여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나누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표방하였다. 이렇게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이러한 양육을 통해 성장하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추방 당한 이후 헤른훗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1732년부터 본격적인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이는 세계적으로 큰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언가 학문적으로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었다. 모인 사람들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어쩌면 보잘 것 없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믿음의 생활을 한 것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무기로 사용하셨고 복음의 큰 통로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한동은 어떠할까. 왜, 포항의 시골짜기에 학교를 세우신거고 대놓고 Hadnong God’s Univiersity라는 이름을 표방한 걸까? 전문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도 아닌 일반 사립 대학교가 무엇을 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일까. 그리고 대담하게도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말을 슬로건으로 내던지는 걸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저 모라비안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냉정하게는 세상에는 우리보다 학문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즐비하다. 세상 지혜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석학들이 많다. 하지만, 모라비안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권위와 학식이 아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성경에 기초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택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주님. 저희의 한동이 그러한 길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학문을 열심히 닦고 학업에 게을리 하지 않되, 그 목적을 자신의 성취와 만족이 아닌, 진정 주의 복음을 불태울 수 있는 한줌의 재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지식과 자랑이 당신의 길을 비추는 데에만 사용되게 하소서. 저희의 교만을 폐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만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에 기뻐 참여할 것입니다. 장차 모든 것을 변화시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